



(가림막으로 5-1을 가리고) 이스라엘의 큰 명절날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가림막을 치워 5-1을 보여주고, ‘빌라도’를 가리키며) 예수님은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셨어요.  
빌라도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거든요.  
(‘군중’을 가리키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큰 소리로 외치며) “저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화가 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마음먹었어요(눅 23:14-15, 22).  
그렇지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치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5-2를 보여주며) 빌라도의 말을 따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때리며 매우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두 손으로 못 박는 흉내를 내며) “꽁! 꽁! 꽁!”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아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비웃는 목소리로) “네가 진짜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아픔을 참으셨어요.

얼마 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눅 23:46)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



죄



용서



용서



(5-3을 보여주고,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가리키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준 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죄를 지으면 ‘죽음’이라는 벌을 받는다고 말해요(롬 6:23).

(‘죄지은 어린이들’을 가리키며) 죄인인 우리는 모두 죽어야만 해요.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가리키며)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용서받은 어린이들’을 가리키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막 10:45).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